

'무차화합' 대의명분에 동의

원불교, 종단협 재가입 추진 배경과 의미 불교계 확장-화해분위기 형성 기대 "기존질서에 악영향" 일부서 신중론

원불교가 종단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한국불교의 영향력 증대는 물론 한국의 종교 지형, 나아가 우리 사회의 화합분위기 확산 등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불교계의 확장, 종단간 화해의 분위기가 종교 내부의 물론 우리 사회에 미쳐 좋은 사회분위기 형성에 일조할 것이며, 원불교의 활발한 시민사회운동 및 국제활동이 불교에 신선한 자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에 따라 원불교의 종단협 가입은 새로운 세기를 앞둔 불교계의 일대 사건으로 기록할만 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원불교가 그동안 해외에 나가서는 불교, 국내에서는 민족종교계열의 신종교로 활동하는 등 다소 불투명한 모습을 보였다가 지적하며 원불교에 대해 끊임없는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음도 사실이다. 현재 대체로 안정적인 종단협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도 있다. "이제라도 불교라고 선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 논의는 두 대표간에 이미 '합의'에 이른 상태이다. 찬반 논의가 뒤따를 경우 불

교와 원불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불교의 종단협 가입은 재가입이란 표현이 맞다. 원불교는 종단협의회 발기 당시부터 12개 종단 가운데 하나로 참여했으며, 종단협 내의 세계불교도우회 한국지부 부회장 종단으로서 활동했다. 70년대 중반까지도 당시 문공부등록 불교종단이었다. 그러다 80년대 초 이후 불교와 멀어졌다.

종단협의회장 고산스님의 가입 제안과 이의 수락은 종교간 화합이라는 대의명분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무차화합'은 고산스님의 지론이다. 원불교측의 "종생구제를 위한 불제자들의 협력이 이 종법사의 확고한 의지"라는 전언도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불교 내에서는 94년 이광정 종법사의 취임 이후 원불교의 '불교화'로 가다

를 잡은 것도 중요한 배경이라는 풀이이다. 이 종법사는 교리연구기관 수위단을 통해 경전과 교헌상 석가모니 부처님이 명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불교를 불법에 연인한 '새불교'라고 정의해 내부적으로는 불교임을 분명히 했다.

97년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주치의 '원불교 교회의 재문제' 주제의 세미나에서 "법신불이 원불교 교리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원불교는 불교사상의 중심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결코 불교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었다. 97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대회에 원불교 대표가 참가인으로 참가하기도 해 종단협의회 가입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불교종단간의 유대와 협력 증진, 불교종교와 민족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67년 창립된 종단협의회에는 현재 28개 종단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성준 기자 (swjung@buddhapia.com)

동강을 살리자. 강원도의 동강을 막아 댐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안에 정면으로 그리고 의롭게 부딪치는 시민단체들이 늘어 가고 있다. 맑은 시민단체들이 앞장 서서 부딪치는 보람이 있어서일까. 정부 당국에서 동강의 댐 건설을 미루거나 재고해야 한다는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혹 들끓는 여론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완강한 강행엔 제동이 걸려 다들 수습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부딪치는 충돌이 있다. 현실론에 입각한 개발론과 후세를 위한 개발의 제논이다. 문제는 이런 상충된 모순을 어떻게 최소화하여 합일점을 찾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왕왕 보면 그런 타협점보다는 팽팽한 힘 겨루기를 앞세워 어느 쪽이든 힘이 실리는 쪽 마음대로 했던 것이 과거지사다. 이런 논리라고 보면 언제나 강압적 집행자는 정부였었다. 정부는 항상 옳고 국민은 항상 우민으로 남았다. 시대의 변화 때문일까. 동강은 그래서 서서히 인종을 넘기고 명을 더하게 되는가 한다.

사람들은 동강이 없어지면 자연의 생태계가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면 인간이 살아남는 조건이 달라짐으로써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까진 생태계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사람이 살아야 하

는데 하는 알고 단순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태계는 사람이라고 예외이진 않다.

겨우 회생한 동강이 이번에는 댐을 막아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댐을 막고 있다. 기사회생한 흰겨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때로 물러가서 짓밟고 있다.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지난 일을 보고 미래를 배우는 일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지혜이다.

부처님은 사람에게서 네가지 부류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다른 마을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속된 행동을 버리고 도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사람이 죽자 비로소 충된 모순을 어떻게 최소화하여 합일점을 찾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왕왕 보면 그런 타협점보다는 팽팽한 힘 겨루기를 앞세워 어느 쪽이든 힘이 실리는 쪽 마음대로 했던 것이 과거지사다. 이런 논리라고 보면 언제나 강압적 집행자는 정부였었다. 정부는 항상 옳고 국민은 항상 우민으로 남았다. 시대의 변화 때문일까. 동강은 그래서 서서히 인종을 넘기고 명을 더하게 되는가 한다.

사람들은 동강이 없어지면 자연의 생태계가 바뀌고, 생태계가 바뀌면 인간이 살아남는 조건이 달라짐으로써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까진 생태계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사람이 살아야 하

이근후(이화대학교수·본지 논설위원)

동강을 살리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부딪치는 충돌이 있다. 현실론에 입각한 개발론과 후세를 위한 개발의 제논이다. 문제는 이런 상충된 모순을 어떻게 최소화하여 합일점을 찾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왕왕 보면 그런 타협점보다는 팽팽한 힘 겨루기를 앞세워 어느 쪽이든 힘이 실리는 쪽 마음대로 했던 것이 과거지사다. 이런 논리라고 보면 언제나 강압적 집행자는 정부였었다. 정부는 항상 옳고 국민은 항상 우민으로 남았다. 시대의 변화 때문일까. 동강은 그래서 서서히 인종을 넘기고 명을 더하게 되는가 한다.

이근후(이화대학교수·본지 논설위원)

대의원 직접투표 자질 검증

두달 남은 中信會 회장선거 후보 서너명거른 집안싸움 안되길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선거(8월20일)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선거를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중앙신도회 임원선거는 이전의 방법과는 달리 대의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신도회의 대표를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회원들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 뿐 아니라 권위행사에 따른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고, 선출직 임원 역시 자신을 선출한 대의원들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여의 신도회장 부재가 가져온 영향은 조직의 존폐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조계종의 중법사규정된 신도 대표조직으로 보기에 초라한 것이 사실이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총무원이나 중앙신도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더욱 일이 꼬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임원 및 신도들의 무관심도 한 몫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원불교 법신불 일원상 '종지' 1924년 불법연구회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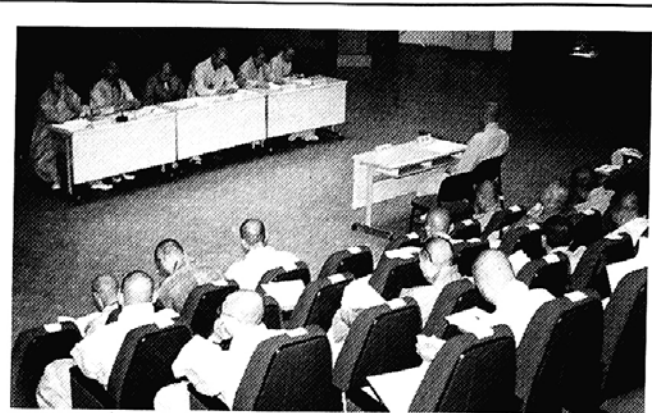
1924년 소태산 박중빈(1891~1943)이 창립했다. 소태산은 10세 때부터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지녀 오래도록 명상수행을 하다 26세 되던 해에 '만유(萬有)가 한 체성(體性)이며, 만법(萬法)이 한 근원'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후 1924년 창립한 불법연구회가 원불교의 효시이다.

원불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종지로 삼고 있다. 원불교측은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일원(一圓)의 진리라 이름하고, 이 일원의 진리를 'O'로 표현하였으며, 원불교에서는 이 'O'를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경전은 소태산이 쓴 《정전(正典)》과 그의 언행기록인 《대종경(大宗經)》으로 편찬된 《원불교교정》이다.

국내에 4백30여개, 국외에 13개국 30여개 교당이 있으며, 출·재가 교직자 7천5백여명, 신도 1백10만여명이다. 원광대학교 성지교과 등 10여개의 종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종교자랑화회의(WCRP), 세계불교도우회(WFB), 국제종교자유연맹(IARF), 국제연합 비정부단체(NGO) 등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국제간 종교협력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종교사》의 저자 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슨은 원불교를 "불교적인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개인주의의 정태로부터 영감을 불교개혁운동의 한 예였다. 원불교는 조화롭고 오묘한 교리체계를 지닌 혼합적인 종교"라고 했다.



◇과거별 토론 후에 발표회를 갖고 있는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사님들.

"승려 재교육 세분화해야"

조계종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민)은 6월 29~30일 천안 주택은행 연수원에서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는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의 본말사 스님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는 성균관대 유필화교수의 '현대사회에서의 사찰주지의 역할' 주제의 강연, 향천사(주지 자인) 및 명법사(주지 순형)의 우수 교화활동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본과토론의 요약이다.

■ 승려 재교육 개선점과 방안=승려 재교육은 초발심으로 돌아가 느슨한 마음을 다잡는 역할을 한다. 본사별 연령별 학력별 승랍별로 세분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신도교육 활성화 방안=신도들이 기복불교에서 탈피해 기본 예법 등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계, 6법공양, 보살계 수계식 등 신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교제를 선택해 한 권을 배웠다는 성취감을 맛보도록 해야 한다.

■ 주지의 리더십과 과제=계명정정, 숭선수법, 신심충만 등

이 리더십이 기준이 돼야 한다. 리더쉽은 개인적 수행과 교육에 의해 길러지며 팔방미인을 필요로 한다. 가람수호, 정법도생, 경성성불이란 주지의 소임을 다하면서 21세기에 맞는 문화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포교 활성화 방안=관공전을 어린이법당으로 활용하고 초등학교에 장학금 지급, 어린이 동사법회, 특성화교육(서예, 한문 등)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비구니스님을 활용해 불교유치원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

■ 청소년포교 활성화 방안=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센터, 결식학생돕기, 청소년진로상담, 문화공간(영화상영) 제공 등 실제로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통해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해야 한다.

■ 신도회 결성과 활성화 방안=세대별 지역별 동호회별 법회를 구성하고 가정법회를 활성화해 인간적인 유대를 돕는다. 각 신도모임별로 결혼, 장례, 병문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해 화합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도 만족위한 마케팅개념 도입을"

유필화교수 강연내용

"자리타(自利利他)의 현대적인 해석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개념을 사찰에 적용할 때 고객(신도) 만족은 포교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유필화교수(경영학)는 29일 충청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에서 '현대사회에서의 사찰주지의 역할'이란 강연을 통해 "주지스님들이 신도 지향의 포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를 위해서 장례법회, 간병법회, 신행·건강·인생상담 등 신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

의 법회와 교육(불교와 교육·재테크·영어 등) 프로그램을 개발(시장세분화의 개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수한 교리와 자연환경, 문화유산, 마케팅 개념을 사찰에 적용할 때 고객(신도) 만족은 포교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수는 신도들의 주인식 교양을 위해서 수처자주(隨處作主)의 정신을 일깨우는 한편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 투명한 재정, 다양한 신도조직과(봉사활동 등) 소규모 모임 활성화, 다채로운 기회, 행사, 이벤트(불교 4대 명절, 졸업·입학식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채워 줍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 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45cm×45cm

◎ 보급가: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34-9490, 334-9491
 야간: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수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은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형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과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산과 건강을 불러주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장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만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만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만다라니 처방방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34-9490, 334-9491
 야간: (0342)706-3060